# IMF 한파속 한약시장 "꽁꽁"

## 환율인상으로 수입약재값 2배 폭등
## 이대로 간다면 무더기 폐업위기 우려도

IMF 한파속에서 한약재 시장 경기도 얼어붙은 지 오래다. 환율인상으로 수입약재 시세는 평균 40~50%, 많게는 2배까지 폭등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근당(6백g 기준) 7천원 하던 공사인은 12월 말 현재 1만원으로 계피는 1천7백원에서 2천6백원으로, 5천원 선이던 홍화는 1만원으로 무려 2배로 올랐다. 또 복령은 1천5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2천5백원이던 산조인이 근당 3천5백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처럼 수입약재 값이 폭등한 원인은 환율인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에서의 신용장 발급 중단으로 현금이 아니면 필요한 약재를 들여올수 없게 됨에 따라 수입약재 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른 때문이다.

이같은 수입약재 값의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국산 초재는 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한 때문인지 상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경동약령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간다면 올해 안으로 문을 닫을 업소들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수입약재의 경우 물량이 없어 그동안 창고에 남아있던 질이 떡어지는 약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율무 비닐피복 효과 구명
### 연천 율무 시험장

율무를 비닐피복 재배한 결과 광생분해비닐과 흑색비닐피복 파종에서는 발아 소요일수가 단축되고 착립수가 많아져 수량에서도 무피복에 비하여 광생비닐이 34%, 흑색비닐이 20%의 증수 효과를 보였다. 또 기계파종에의 한 노력절감효과는 인력에 비해 7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농촌진흥원 연천율무시험장의 지난 97년 율무시험연구결과 자료에 따르면 파종기를 앞당길 수 있을뿐 아니라 파종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확적기는 개화기 후 60일에 수확하는 것이 수량도 많고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유형별 수량성 조사에서는 발재배는 논재배보다 30% 증수, 높은이

## 오미자나무 적정수량 크게 늘어
### 「연간윤벌」「완전삭벌」통풍성향상

심은지 10년된 오미자나무의 경우 전정하면 방치할 때 보다 수량이 2.1~2.5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 전작과가 「무주재래종」 오미자나무 10년생을 대상으로 전정효과를 구명한 결과 한줄은 전정하고 나머지 한줄은 방임하는 형태로 전정하되 매년 전정하는 나무줄을 바꾸는 연간윤벌전정의 경우 3년평균 수량이 10a(3백평)당 3백18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정하지 않고 방치할때의 평균 수량 1백49kg에 비해 수량이 2.1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땅위 10㎝부위나 1㎜부위에서 오미자나무를 잘라주는 완전삭벌전정시는 첫해는 수확할수 없지만 이듬해 2년간 수확량이 크게 증가, 3년 평균수확량으로는 각각 3백54kg과 3백69kg으로 전정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보다 수량이 2.3~2.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관행의 율타리형 재배와 덕을 이용한 덕식을 주지(원가지)형과 분지형(여러 곁가지 키움형)으로 각각 조합해 과수원을 조성하고 수량을 조사한 결과 재배 3년차인 결실 첫해는 율타리형과 분지형이 덕식이나 주지형보다 20% 이상 많았으나 나무 폭이 늘어나 햇빛 투과율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덕을 조성하고 주지를 키우는 덕식추지형 수형구성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사설

## 새 정부에 바란다

근면한 국민성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아오던 『한강의 기적』이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부의 타성에 젖은 관치경제와 정책,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투자등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치뤄졌으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정의, 공정 실현』, 대외적으로는 『약속이행』을 중심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 권익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IMF시대에 있어 국가경제의 개혁과 그 방향의 초점이 기업 및 금융등에 우선하여 자칫 농민과 생약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묻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정부에 농민과 생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은 타 부분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음을 감안,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농민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며 경제 주체로서 농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현재의 경제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어려움이 아무런 여과나 완충없이 그대로 농업 부분에 반영되고 있어 심도있는 대비책이 시급히 요망될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투자의 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5만 3천여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며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해 온 생약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공약을 착실히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생약인들은 스스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양질의 생약재 생산 등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생약업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농약함유 비닐 멀칭제
### 제초비닐 멀칭 효과

밭작물의 제초와 비닐멀칭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농약함유 비닐멀칭제가 개발돼 조만간 상품화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약개발과 관계자는 그동안 밭작물 재배에 있어서 최대 과제였던 제초제 살포작업과 비닐피복작업을 단한번의 비닐피복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약함유 비닐멀칭제를 개발, 현재 농약과 비닐제조회사가 제휴해 상품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약함유 비닐멀칭제는 일반투명 멀칭용 비닐에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혼합 용융하여 만든 것이다. 비닐멀칭후 토양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비닐 안쪽 표면에 맺히면 약제 성분이 녹아 토양표면에서 서서히 떨어짐으로써 잡초생육을 억제, 농약살포작업과 비닐제거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비닐멀칭처리 90일 후 비닐중 농약 주성분의 잔존율은 1.6%에 불과하고 98.4%가 이 기간중에 모두 용출됨으로써 사용후 수거 폐기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약초음료' 소비자 공략
### 8종의 기능성 음료 선보여

백농협(조합장 박광옥)이 약초 주산지인 강원 태백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약초를 활용 8종의 기능성 음료를 선보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태백농협은 지난 95년 지역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태백시 화전동에 약초음료공장을 준공하고 당귀를 원료로 한 〈고원-D〉, 천궁을 음료로 한 〈블루른-D〉 캔음료를 선보여 과즙음료시장에 약초음료로 도전장을 제시했다.

이후 황기를 원료로 한 〈샘솔-D〉와 황기에 대추를 혼합한 〈황기대추〉 캔음료, 당귀에 대추를 혼합한 〈당귀대추〉병음료를 개발해 소비계층의 폭을 넓혀나갔다.

## '대추 전시관' 문열어
### 보은농협, 관련유물, 책, 음식 비치

## 농협 농산물 물류센터 2층

충북 보은에 농산물 단일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대추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학명(ziziphus jujuba-boeunensis)을 갖고 있는 (보은대추의 약용과 식용으로서 효능 및 우수성과 보은대추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은농협이 최근 보은읍 성주리 189 농협농산물유통센터 2층에 대추전시관을 마련한 것.

총 45평 규모의 대추전시관에는 보은에서 가장 오래된 대추나무(보은군 내속리면 북암리 소재, 추정수령 5백년)사진을 비롯해 대추를 들고 있는 대추나무 불상,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판, 다듬이목, 촛대, 홍두깨, 다식판, 떡메, 디딜방아등 유물 41점이 전시돼 있다.

이와함께 팥도의 명산물과 별미음식을 기록한 책으로 보은대추를 가장 좋은 대추로 인정하고 있는 허균의 〈도문대작원본〉, 대추를 보은의 특산물로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 국가에서 대추나무의 식목을 장려한 최초문헌인 〈고려사〉 등 대추와 관련된 고서와 〈음의보감〉〈방약합편〉〈가정보감〉 등의서등 10여권도 비치하고 있다.

이밖에 전약 대추차 대추죽 대추생강차 대추다식 대추인절미 약식등 일반 대추음식 31점과 대추의 임상연구자료와 한약재 처방, 대추와 관련한 예시조, 민요, 현대수필도 게시해 놓아 볼거리가 풍부하다.

## 인사

「免」

△장두해 경남 창녕군 공판장장(사무소장 유임) 97년 11월 10일부 △정승환 전북 순창군 사무소장 97년11월18일부

「任」

△박용복 서울 강남구 사무소장 97년 11월 1일부

## 내방

△정형모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엄경섭 이사 △김용한 이사 △이지대 충북 지부장 △백문기 이사 △이종범 서울 서대문구 공판장장 △이홍식 서울 강서구 사무소장 △김성배 경기도 지부장 △임완수 강원도 지부장 △이승엽 전라북도 지부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갑 구 사무소장 △정일남 구례군 사무소장